

중앙청사 어린이집 인접주민 자녀 이용에 관한 건의안

의안 번호	1117
----------	------

제안연월일: 2005. 6. .

제안자: 조기태의원외 7인

1. 주 문

보다 많은 우리의 꿈나무들이 수준 높은 영·유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훌륭한 시설과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한 중앙청사 어린이집의 입소범위를 인접지역 주민 자녀들에게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종로구 창성동 117번지 소재 중앙청사 어린이집은 4,302㎡(1,301평)의 대지위에 건립된 5층 건물로서 건물 연면적이 7,639㎡(2,310평)이며 2004년까지는 행정자치부 문서기록 보존소로 사용하였으나, 여성부에서 6억 5천여 만원의 예산으로 1층부터 3층까지 690평을 리모델링하여 2005년 3월 16일에 194명의 정원으로 어린이집 인가를 득하고 서울여자대학교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임.

여성부 지침에 의하면 직장보육시설은 직원 자녀의 1/3 이상만 확보하면 인근지역 어린이의 입소도 가능 하도록 되어있지만 중앙청사 어린이집은 입소대상을 중앙부처 공무원 자녀로 제한하여 2005. 4. 21. 현재 인가정원 19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7명만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수준 높은 영·유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소대상 범위를 인접주민 자녀들에게 까지로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함.

※ 참고 규정

1. 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2.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3.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

중앙청사 어린이집 인접주민 자녀 이용에 관한 건의안

종로구 창성동 117번지 소재 중앙청사 어린이집은 4,302㎡(1,301평)의 대지위에 건립된 5층 건물로서 건물 연면적이 7,639㎡(2,310평)이며 2004년까지는 행정자치부 문서기록 보존소로 사용하였으나, 여성부에서 6억 5천여 만원의 예산으로 1층부터 3층까지 690평을 리모델링하여 2005년 3월 16일에 194명의 정원으로 어린이집 인가를 득하고 서울여자대학교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입니다.

중앙청사 어린이집은 최신시설을 완비하고 29명의 전문지식을 갖춘 교사들이 영·유아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독특한 존재라는 아동관을 바탕으로

- ① 대학교와 연계하여 서울여자대학교 아동심리 전문가를 초빙하여 영·유아 인지, 사회·정서발달 상황을 평가, 이를 보육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 ②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세종문화회관 및 경복궁 등의 문화적·자연적 환경을 활용, 공연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 ③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과도 연계하여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하고,
- ④ 기존의 종일제 보육시간 이상의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를 위해 19:30부터 22:30까지 시간 연장형 보육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부 지침에 의하면 직장보육시설은 직원 자녀의 1/3 이상만 확보하면 인근지역 어린이의 입소도 가능 하도록 되어있지만 중앙청사

어린이집은 입소대상을 중앙부처 공무원 자녀로 제한하여 2005. 4. 21. 현재 인가정원 19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7명만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수준 높은 영·유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소대상 범위를 인접주민 자녀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05. 6. 1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